이 땅 위에 건축사만은 살아남아야 한다.

Architects must survive in our country

백에 백, 천에 천이면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불경기의 터널 속에서 유독 건축사가 겪고 있는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첫째 이유는 정부의 주택정책과 건축행정에서 비롯되었다.
시골 논바닥까지 들어찬 아파트들이 오늘의 건축사를 모두 망쳐 놓았다.
덤핑만 있고 디자인이 없는 아파트는 건설만 있지 설계라곤 없는 부동산을 양산했고,
재산가치의 상승만 노렸지 정작 주거의 본질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당신"이였다.

이러한 주택정책에 비하면 건축행정은 솔직히 바위에 계란치기나 다름없었다.
경제부처에 파묻힌 건축부서가 힘도 못쓰다가 난데없이 건축사에게 날벼락을 날렸다.
몇 십 명에서 겨우 백단위에 진입하더니 느닷없이 연간 1,000명의 건축사를 쏟아냈다.
크고 작은 일거리 가리지 않고 정작 한 건 나타나면 우르르 아비규환이나 다름없다.
결과는 너무나 뻔했다. 일없고 돈 없는 건축사는 직업의 대열에서 낙오하기 시작했다.
1등이던 대학의 커트라인, 취직에 민감한 수험생들로 순위조차 찾기 어렵게 되었다.
꿈에 부풀었던 건축을 포기하고 다른 전공으로 옮겨가는 학생들과 경력자도 상당하다.
도대체 건축의 나락이 그 어딘지, 건축사의 절망은 또 어디까지인지 그 가늠조차 힘들다.

둘째 이유는 우리 건축사에게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른다.
일거리들이 지천으로 깔려 있을 때, 모아둔 복지연금을 걸핏하면 쪼개버리곤 했다.
복덕방에서 일감을 찾고 집장수들에게 끌려 다니면서 직업자랑을 한 게 큰 잘못이었다.
창작보다는 모방에 또 모방보다는 바로 눈앞의 이익에 현혹되기도 했으니 말이다.
무엇보다도 확실한건 남들이 정부와 정책에 맞서 뭉치고 싸울 때, 우리는 불구경만 했다.
우는 애기 젖 준다고 우리 주장과 투쟁이 미약한 만큼 이제 막다른 골목까지 오고 말았다.
지금에 와서 누구를 원망하고 누굴 탓하는 것만큼 더 바보스런 일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도 또 더 이상 떨어질 나락도 없다는 즉사필생의 한가지 길 뿐이다.

그동안 어떤 이유이던 간에 끊어져 있던 관계의 다리를 복원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가 된다.
제1은 행정당국과 정부정책과의 고리를 다시 연결하지 않고는 그 길이 안 보인다는 것이다.
갓 출범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더불어 지금의 해법도 찾고 내일의 비전도 마련해야 한다.
세계화로 가는 선진국가간 경쟁에서 건축정책만큼 더 중요한 문화경쟁력도 없기 때문이다.
다음 제2는 모든 건축관련 단체가 통합된 하나의 주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관철하는 일이다.
건축 내부의 분열이 있는 한 외부와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
그 다음 제3은 건축사에게 국민은 건축주이기 이전에 봉사와 헌신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혼자 잘 먹고 잘사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 속에 파고들어 아픔을 같이 하는 건축사라야 한다.

건축이 죽으면 건축사도 따라 죽고 결국엔 이 땅위에 건축문화도 사라질 것이다.
죽기를 각오하고 건축을 살리지 않는 한 건축사는 국가와 민족의 영원한 죄인이 된다.
우리 모두 건축의 마지막 자존심과 건축사의 마지막 자긍심에 뜨거운 불을 붙이자.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우리 건축사의 영광을 위해서, 오로지 이 길밖에 또 방법이 없다.

김영수 / Kim Young-soo, KIRA
(주)건축국 종합건축사사무소

약력
-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및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 역임
- (사)대한민국 국제문화교류협회 회장
- 녹청련(녹색건축 청색도시 시민디자인연대) 공동대표